

시멘트 콘크리트파일 드라이 모르타르에 이어

담합 의혹, 철근까지 휘말렸다

시멘트와 콘크리트파일, 드라이 모르타르에 이어 철근까지 담합 의혹에 휘말렸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7일 주요 제강사들에 대한 조사를 전격 단행했기 때문이다.

과거 시멘트 등 다른 자재업계에 대한 공정위 조사의 후폭풍을 감안하면 제강사들이 추진했던 4분기 철근가격 인상도 어려워질 것이라 관측이 지배적이다.

지난 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7일부터 이틀간 철근 등 건설용 철강재를 주로 생산하는 현대제철, 동국제강 등 주요 철강업체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대상이 철근을 주로 생산하는 전기로 업체들이고, 조사 주체가 공정위 카르텔국으로 알려지면서 철근가격 관련 담합 혐의에 무게를 둔 조사로 업계는 보고 있다.

현재 철근 재고량 급감 제강사들, 유통업체 압박

공정위 제강사 조사에 따라 가격상승 압박 완화 희망론도

철근은 지난 10월만 해도 대리점에서 1당 50만원 내의 가격으로 쉽게 구입할 수 있었지만 현재는 56만원 이상에 팔린다. 철근 재고량도 급감해 10mm 규격 등 건설현장에서 많이 쓰는 품목은 극심한 품귀현상을 보이고 있다.

중국산 철근가격의 초강세와 연료탄, 스크랩 등 주요 원·연료비 상승, 그리고 아파트 등 건설착공 물량 급증이 복합작용한 여파다. 다만 업계 일각에서는 동절기 철근가격의 이상 급등의 배후에 제강사들의 유통사 압박과 생산량 조절이 자리한다는 의혹

도 제기한다.

실제 지난 10월 동국제강 등 일부 제강사의 텀핑 탓에 급락한 철근 유통가격을 회복하기 위해 제강사들이 유통업체를 압박했다는 지적이 심심치 않게 나온다.

유통업체의 한 관계자는 "공정위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예단하긴 어렵지만 일부 제강사가 지난 11월부터 유통가격 급락세를 방어하기 위해 대리점들을 압박한 후유증이란 추측이 힘을 얻고 있다"며 "공정위에 대한 제보도 손실 위기에 몰린 유통 쪽에서했다는 소문까지 나온다"고 말했다.

실제 담합 여부는 물론 제강사에 대한 처분 등 후속조치 형태도 여전히 지켜봐야 하는 상태다. 제강사들 역시 생산조절이나 담합은 절대 있을 수도, 가능하지도 않다고 반박하고 있다.

다만 시멘트, 콘크리트파일, 드라이 모르타르 등 올해 이미 담합 혐의로

과징금 처분을 받았던 자재업계의 기존 사례를 돌아보면 4분기 철근가격 인상은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게 업계 시각이다.

2013년 가격인상을 추진했던 시멘트 업계가 공정위 조사 직후 바로 철회하는 등 담합조사 직후에 가격인상을 강행한 사례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지난 7일 철도노조 파업이 끝나 시멘트, 레미콘 수급 우려를 달아낸 데 이어 공정위 조사로 철근가격과 수급의 솜토도 트일 것이라 희망론도 상당하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공정위 조사의 구체적 이유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적어도 제강사들이 압박했던 4분기 철근가격의 인상은 어려워지지 않겠느냐"며 "철도파업까지 마무리되면 서 올해 품목별로 이어진 자재 품귀 현상과 가격상승 압박을 완화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안재용 기자

LX공사 투명경영 인정

내부감사부문 우수상

반부패 청렴에 앞장서는 LX한국국토정보공사가 조직의 투명경영을 인정받았다.

LX공사 감사실은 9일 한국감사협회 주관하는 내부감사대회에서 '2016 내부감사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 상은 감사인의 명예와 자긍심을 높이기 위하여 (사)한국감사협회가 국내 내부감사 발전에 기여하고 국제감사기준(IIA)에 부합하는 감사활동과 조직의 투명성 확보에 기여한 기관을 선정해 시상한다.

지난 2월 공사에 부임한 이문수 상임감사는 청렴한 조직, 원칙과 기본 중시, 국민 공감 형 감사 등 3가지 감사 방침을 정하고, LX 감사원익보호



LX공사는 지난 9일 한국감사협회가 주관하는 내부감사대회에서 '2016 내부감사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

관 제도와 일상감사 의사결정지원시스템 도입 등 체계적인 제도개선에 힘쓰고 있다.

이문수 감사는 "공사의 투명경영이

국내 최고 수준이라는 데 자부심을 느낀다"면서 "공공성 강화를 통해 조직의 건전경영이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재용 기자

캠코 전북본부, 도내 압류재산 61건 공매

한국자산관리공사 전북본부(이하 캠코)는 12일부터 14일까지 전북도 소재 재산 약 21억원 규모, 총 61건을 온비드(www.onbid.co.kr)를 통해 매각한다.

이번 공매는 전북도민에게 유익한 공매 정보를 제공하고 공매 활성화를 통한 국가 및 지자체 재정 확충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캠코가 진행하는 이번주 주요 공매 물건에는 군산시 나운동 소재 근린생활 시설과 군산시 나운동 소재 대지, 전주시 중화산동 소재 아파트 등이 있다.

공매 참여 시 입찰차 현황 등 권리 관계 분석에 유의해야 하고 명도책임은 매수자에게 있으므로 주의할 것을 당부한다.

또한 이미 공고된 물건이라 하더라도 자진납부, 송달불능 등의 사유로 입찰 전에 공매가 취소될 수 있다.

입찰 희망자는 보증금을 미리 준비해야 하며 물건의 입찰일정에 맞춰 온비드(On-Bid)에 입찰서(입찰보증금 납부 포함)를 제출하면 입찰이 완료된다.

공매 입찰 결과는 오는 15일 11시 이후부터 온비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안재용 기자

술내초 신축공사 입찰 진행

조달청은 이번주에 전북도교육청 수요 '전주술내초등학교 신축공사' 등 총 54건, 4,149억원 상당의 공사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이번주 집행되는 입찰은 전남개발공사 수요 '남악신도시 옹호지구 택지개발사업 남창1교 건설공사' 등 집행 건수의 약 83%(45건)가 지역제한 입찰 또는 지역의무 공동도급 대상공사이다. /안재용 기자

공군 장병 위문품 전달

연말을 맞아 한국 농어촌공사 부안지사(지사장 김병수)가 최근 공군 제8351부대(대대장 최영호)를 찾아 불철주야 국토방위에 헌신하는 국군 장병을 격려하고 위문품으로 전달했다.

이 지리에 김병수 지사장은 "국군장병들이 맡은 바 최선을 다하고 있기에 국민들은 편안하게 일상생활을 할 수 있어 장병들이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이에 최영호 대대장은 위문품을 전달해준 농어촌공사 부안지사 직원들에게 고마움을 전하면서 "앞으로도 국가의 안보를 더욱더 튼튼히 하여 국민들이 더욱 편안하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부안=이옥수 기자

스타·최고 일자리기업 선정

신보, 21개 대상 수여식

신용보증기금은 지난 9일 서울힐튼호텔에서 11개의 스타기업과 10개의 최고일자리기업을 선정하고 수여식을 개최했다.

신보로부터 '신보스타기업'과 '최고일자리기업'으로 선정되면 보증료 우대, 회사채 발행 시 금리 우대, 맞춤형 컨설팅 제공 등 다양한 금융·비금융 지원을 받게 된다.

신보는 '신보스타기업' 제도를 통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총 88개의 기업을 선정했고, 이 중 3개 기업이 코스닥, 1개 기업이 코넥스에 상장하는 성과를 거뒀다.

올해는 총 41개 후보기업에 대해 현장평가와 본부심사위원회를 거쳐, 학계 및 유관기관에 종사하는 최고의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를 통해 11개 기업을 최종 선정했다.

'최고일자리기업'은 신보가 2014년부터 2016년에 걸쳐 선정한 360개 '좋은일자리기업' 중에서 고용문화를 선도하는 최우수 기업을 선정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시행된 제도이다.

신보 황록 이사장은 "이번 선정을 계기로 '스타기업'과 '최고일자리기업'이 중견기업과 대기업으로 성장해 우리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자 견인차가 되어 줄 것을 기대한다"면서, "신보는 미래성장성이 우수하고, 고용의 질이 뛰어난 기업을 발굴해 중소기업이 고용질벽 극복에 앞장설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재용 기자

쌀 생산조정제 도입 '물거품'

기재부 반대로 예산 미배정 내년에도 쌀 대란 불가피

내년 쌀 생산조정제 재도입이 기획재정부의 예산 미배정으로 사실상 물 건너갔다.

또한 벼 재배면적 3만ha를 줄이는 정책 도입이 좌절됨에 따라 쌀 공급과잉이 내년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

쌀 생산조정제는 눈에 벼 대신 다른 작물을 심는 농가에 보조금을 지급해 벼 재배면적을 줄이는 제도다.

2003~2005년 쌀 생산 조정제, 2011~2013년 논소득기반다양화사업이라는 명칭으로 각각 사업이 추진됐다.

농식품부는 쌀 공급과잉이 심각하다는 판단 아래 내년에 쌀 생산조정제를 재도입하려고 했으나, 기재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요구안에 관련 예산이 포함되지 못했다.

기재부는 생산조정제 실효성이 검증되지 않는데다 농업직불제 개편과 연계해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는 이유로 반대했다.

이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쌀 생산조정제가 꼭 필요한 사업이라며 농식품부의 요구대로 904억원의 예산을 상임위에서 증액 의결했다.

하지만 국회 예결위의 벽을 넘지 못했다. 국회 예결위에서 기재부의 반

대가 심했고 여야 의원들의 지역구 예산에 우선순위가 밀렸다. 결국 내년도 농식품부 예산에 쌀 생산조정제 관련 예산이 한푼도 반영되지 못했다.

쌀 생산조정제 재도입을 촉구해온 농민단체들은 기획재정부를 강하게 성토했고 있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쌀 생산조정제 도입 무산에 큰 실망과 울분을 금할 수 없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한농연은 "내년에도 올해보다 훨씬 심한 쌀 대란이 불가피할 것이며, 농민들의 직·간접적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 명약관화하다"며 "내년도 쌀 대란의 책임은 오롯이 기재부에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쌀 생산조정제 재도입을 제 19대 대통령 선거 핵심 농정공약으로 정부와 정치권에 강력 요구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는 성명서를 통해 "눈감고 귀 닫은 기재부의 무능 무지함을 규탄한다"고 언급했다.

쌀전업농은 "쌀 수급조절을 위한 쌀 생산조정제 예산은 도입되지 못한 채 농식품부는 지자체에 떠넘기고, 기재부는 직불제 개악만 시도하고 있다"며 "정부가 쌀 수급조절을 포기한 것이기에 이후 변동직불금으로 인한 예산소모 등 모든 문제는 정부가 자초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안재용 기자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이메일: ndtherapy119@gmail.com

호소다이어트, 해독 프로그램 전문